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환경 조사 연구

연구책임 : 박영정(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자문위원,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 김태만(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문화TF)
곽병창(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문화TF)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문화TF

[목 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2) 연구 방법

2.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 및 환경

1) 평화협력 프로세스 추진 경과

- (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남북교류협력 모색
- (2)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국면 전환 과정
- (3)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력의 구체화

2) ‘판문점 선언’ 과 결정적 전기

- (1) ‘판문점 선언’ 의 의미 분석
- (2) ‘판문점 선언’ 과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시사점

3.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까지의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

1) 문재인 출범 이전,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

- (1) 문화예술 교류
- (2) 관광 교류

4.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남북문화교류 협력 전망

1) 문화예술 교류 전망

- (1) 대북 인식 전환
- (2) 남북중 협력 통한 돌파

2) 관광 교류 전망

- (1) 당장 가능한 관광 아이템
- (2)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3) 남북교류협력의 선행 조건

5.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남북문화교류 협력의 단계별 추진과제

1) 대북제재 하의 남북문화교류 추진 원칙과 방향

2) 새로운 한반도 문화교류 협력 전략

- (1) 단계적 고도화 추진
- (2) 남북한 공존협력의 평화문화 조성

3) 새로운 한반도 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

- (1) 남북 공유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류협력 확대
- (2)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세스 운용
- (3) ‘북한 바로 알기 대중화 프로그램’ 병행
- (4) 문화분야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6.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와 전제적 환경

1) 당면과제

- (1) 평화협력을 위한 문화적 지원
- (2) 평화번영시대에 대비한 남북문화 교류협력 환경 정비
- (3) 평화문화 상징사업 추진

2) 전제적 환경

- (1) 가이드라인 제정
- (2) 합법적 접촉선 확보
- (3) 송금절차 투명성 확보
- (4) 계약불이행시 구제방법 확립
- (5) 민관거버넌스 구성

7. 결론

[참고 문헌]

[표 목차]

- [표 1]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개요>
- [표 2] <2000년대 초반의 대중문화 교류>
- [표 3] <2000년대 초반의 영화부문 교류>
- [표 4] <북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여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 [표 5]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대>
- [표 6] <남북문화교류 단계별 추진 과제>
- [표 7] <남북문화교류 기반 정비 과제>

[부록]

- [1]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2017.5.10)
- [2]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2018.1.1)
- [3] 2018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8.1.1)
- [4] 2018.4.27 판문점 선언(2018.4.27)
- [5] 제1차 북미회담 공동선언문(2019.2.24)
- [6] 9.18 평양 공동성명(2018.9.18)
- [7] 7.4 공동성명서(1972.7.4)
- [8]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 [9] 6.15 기본합의서(2000.6.15)
- [10] 10.4 선언(2008.10.4)

1. 서론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을 놀라게 한 거대한 첫걸음이었음. 그 후 5월 1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진행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는 더 한층 고조되었음.

○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소 소강된 분위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4.27 ‘판문점 선언’에서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명시된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관광계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내용임.

○ 통일시대를 리드하는 문화예술 및 관광 교류협력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판문점 선언’의 제1-④항에서와 같이, 남북 화해협력의 대업에서 문화예술 사업이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 도출이 절실함.

<문재인,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남/북/미 정상회담 일지>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하고 하면서 정상회담 의지 표명.
- 2017년 7월 16일, 독일을 방문해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베를린구상 천명.
-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피력했고, 청와대도 “환영”을 표함. 2월과 3월에는 남북 각각 특사 파견.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 선언’ 채택.
-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15만 북한주민 상대 연설 및 평양공동선언. ‘종전 선언’ 가능성 제시 및 경제·산림·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 국제경기 공동 진출 등 합의. 부속 합의서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강구 명시.
- 2019년 2월 27~28, 제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과도출 무산.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8년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으로 첫째 남북한 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두번째로 DMZ의 경계초소를 영구히 복구불가능하게 파괴했음.

○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혈맥을 연결하는 철도연결 사업이 향후 남북한 문제에 끼칠 영향력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임. 하지만, 한반도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문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동번영의 주춧돌이 되기에 분명해 보임.

○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존의 체제를 승인하고 존중하면서 현재의 분단상태를 더 이상 갈등과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감소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더 한층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착수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인식 제고 및 스포츠 교류와 관광 확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류는 남북한 공연 교류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스포츠 교류도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었음. 교육은 남북한 상호인정과 존중의 출발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음.

○ 관광교류 역시 남측의 대북방문 일변도의 불균형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안도출이 절실함.

○ 남한 내에서의 대북 인식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없고, 북한에서의 대남 정보의 확산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 상호간 왕래와 교류의 기회는 매우 절실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제약 속에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화해와 평화의 모드로 진입한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문화교류는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어떠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 아이টে을 개발해 가야 할 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환경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임.

○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에 즈음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까지의 문화예술관광교류 협력 현황 및 기초 환경으로 조사·분석 한 후, 향후 문재인 정부 3년 차 이후 남북한 문화예술관광 교류 협력을 위한 단계적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를 위해 크게 ‘문화예술 교류’와 ‘관광 교류’를 구분해 향후 정책과 방안을 제안할 것임.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교류양상 및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차 이후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 도출.

(2) 연구 방법

○ 문헌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

2. 문재인 정부 출범과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¹⁾

1) 평화협력 프로세스 추진 경과

(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남북교류협력 모색²⁾

○ 지난 두 정부를 거치는 동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지지 입장 고수를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

○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 전략,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되, 남북관계는 개선하겠다는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 접촉 신청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해 2017년 5월 26일 승인(이는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506일 만의 대북 접촉 승인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4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

○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안보리 결의 제2356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 입장을 이유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의 방북을 거부함.

- 이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개성행사 개최 제의에 대해 북한 당국은 평양행사 개최로 수정 제안했으나,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됨.

※ 반면에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연맹)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2017.6.24~30)에는 북한 ITF(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 36명을 파견하여, 개·폐회식과 전북도청 및 국기원 등 총 4차례 시범 공연.

- 우리 정부는 답방 형식으로 WTF 남한태권도 시범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9월 17일 제3세계 선수권대회(2017.9.15.~21) 개최식 무대에서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거부로 무산.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개월 간(2017.8.14까지)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총 87건에 이를 정도로 각 분야 민간단체들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

1) 이 장은 박영정·윤지연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향과 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11), p11~38 참조. 이 보고서는 ‘판문점 선언’ 전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이를 참조 인용함을 밝혀둔다.

2) 이 절은 오양열의 <남북 문화교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주최 2018 제5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발제문, 2018.11.28.) 참조.

으로 나섬.

(2)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국면 전환 과정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에 참가하고, 여자아이스 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방남 공연에 합의하면서, 경색 국면에 놓여 있던 남북 교류협력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됨.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림픽 개최 40일을 앞두고 참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예술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남공연에 관한 남북 협상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제안하였고, 북한이 이에 화답한 것임.³⁾

- 2018.1.1,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힘.

- 2018.1.2, 통일부장관, 북한에 남북당국회담 제의

- 2018.1.9, 남북고위급회담(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북측이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합의. 이후 군사당국회담 등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함.

- 2018.1.15, 남측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측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판문점).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 사전 점검단 파견 등 합의

- 2018.1.17, 실무회담을 통해 선수단 참가 종목과 규모는 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로 결정, 개최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응원단(230여 명), 태권도시범단(30여명), 기자단 파견, 패럴림픽대회 참가(규모 150여명) 등 합의, 남북올림픽위원회 합동회의(로잔)

- 2018.1.20, IOC선수단 규모,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여부, 단일팀 구성 방식 등 확정

- 북한은 합의대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을 파견하였고, 이와 별개로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의 특별공연도 진행

3) 2017.4.8(후보 시절) ‘강원도 비전’을 통해 평화올림픽 구상 공약 제시. 6.24, ‘2017 무주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축사, ‘7.6 베를린 구상’(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밝힌 독일 베를린 코르버재단 초청 연설, 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9.21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연설, 9.22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서울 공연

○ 2018년 2월 8일과 11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 공연을 강릉아트센터와 국립극장에서 진행.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에서 북한은 다수의 남한 노래들을 선보이며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임.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획 목적을 내걸었고,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여는 전주곡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 남한 예술단의 평양공연

○ 2018년 4월 1일과 3일, 남한 대중가수로 구성된 예술단이 평양의 동평양대극장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봄이 온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의 단독공연과 합동 공연을 잇달아 진행. 남한 예술단의 구성은 삼지연관현악단 남한 공연 레퍼토리의 원곡 가수들 외에 이선희, 최진희, 과거 평양공연 경험자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윤도현밴드, 실향민 2세인 김광민과 강산에, 가창력이 좋은 백지영, 정현, 아이돌그룹인 레드벨벳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삼지연관현악단의 남한 공연에서는 남한 노래를 다수 불렀으나 남한 예술단의 북한 공연에서는 서현이 <푸른 버드나무> 1곡만 불러 곡목 선정에서 상호주의 파괴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임. 남북합동공연으로 진행된 2차 공연에 참가한 삼지연관현악단도 북한 노래가 아닌 계몽기가요⁴⁾를 메들리로 연주함.

○ 남북한 공연예술교류에서 보여준 북한 당국의 유연한 태도는 대남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3)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력의 구체화

□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줄여서 ‘판문점 선언’) 채택.

-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근 10년 정도의 단절기, 경색 국면을 뛰어 넘어 그 이전 남북 합의 관계를 복원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을

4) 북한에서는 해방 전 근대시기에 불리던 가요 가운데 ‘민족음악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노래들을 통틀어 ‘계몽기가요’라 하는데 여기에는 계몽가요(창가), 동요, 예술가요(가곡), 신민요, 대중가요가 포함된다.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선 실행할 수 있는 사업 특히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와 핫라인 개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임.

- ‘판문점 선언’의 의제 순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먼저 제시하고, 평화협력이 가장 후순위로 되어 있지만, 남북정상간 선언의 이면에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을 괄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5.26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운전자론

-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 긴급 현안을 둘러싼 격식과 절차를 간소화한 회담 운영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 개최 목적이 무산 위기에 놓인 북미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고, 실제 미국의 입장 변화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 냈음.

- 직통 전화 대신 직접 회담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다는 의미.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채택

-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공동성명의 제목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이며, 주요합의사항은 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④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이며, 이 가운데 ④의 일부가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에 이행되었음.

- 그럼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맨 앞에 제시한 것은 북미정상 회담의 최종 도달 목표가 북미수교에 있음을 말해 줌.

- 문제는 가장 핵심 의제인 ‘비핵화 이슈’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김.

- 다만 ③의 이행 주체가 ‘북한’으로 명시되어 북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음.

- 문제는 후속조치를 통한 북한 비핵화가 어느 시점에 가시권에 들어오느냐 하

는 것임.

-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7.6~7) :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설치, 미군 유해 송환 및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약속. 그러나 미국은 CVID 원칙을 확인하고 신고와 검증에 방점을 둔 반면, 북한은 관계 개선 위한 다방면적 교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선행하는 종전선언(7.27) 발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ICBM 생산 중단을 위한 엔진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 발굴 실무협상 등 동시행동 조치를 강조하여 핵심 의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유엔군-북한군 장성급 회담(7.15) 및 군사실무회담 개최(7.16) : 유해 송환 협의

- 미군 유해 557구 송환 실시(정전협정 체결일, 7.27)

- 그러나 8월 23일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발표되었으나 다음날인 8월 24일 트럼프의 전격 취소,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

□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전략 목표 차이

○ **북한의 전략** : ‘단계적, 동시 행동적 조치’ .

[표 1]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개요>⁵⁾

단계 및 대상	비핵화 조치	상응 조치
1단계 미래핵 (핵실험장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검증	한미군사연습 중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2단계 현재핵 (핵물질 생산 관련시설)	신고-검증-폐기-검증	경제제재 유예, 연락사무소 운영
3단계 과거핵 (핵물질 핵탄두, ICBM)	신고-검증-폐기-검증 * 해체 반출 문제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전면 해제, 대사급 수교

○ **미국의 전략** :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CVID) 핵폐기를 목표로 모든 핵 생산시설과 핵무력의 일괄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지속한다는 입장.

○ 무엇보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앞서 ‘선 신뢰조성’ 을 강조하고 그를 위한 1단계에서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입장과 대립 되고 있어 비핵화 이행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5) 박영정·윤지연, 앞의 보고서 p17 인용. 이 도표는 조성렬의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과 한국의 역할> (『평화 새로운 미래-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10.5) p.35에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음.

□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9월 5일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 남북한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하기로 합의.

- 9월 18일, 가두 환영 행사, 평양대극장에서 환영공연,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체결,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및 문재인 대통령의 15만 평양시민 대상 연설, 9월 20일 백두산 천지 탐방

○ 9월 평양공동선언은 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비통제, ②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③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④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 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여섯 가지 합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남북 관계 발전을 앞세워 북미 관계 진전을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의 역할을 전제로 남북정상이 공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판문점 선언’에서는 비핵 평화프로세스 관련 소극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로 중심 이동이 있었으며, 특히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진입하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큰 틀에서 비핵평화협상의 진전 상황에 맞추어 가되 남북한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남북정상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는 상호 불신이 중요한 요소인 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상호 신뢰를 끌어내는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이 강하였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단순 운전자’에서 ‘신뢰의 촉진자’로 확대.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핵완전타결은 물론 나아가 북미중전서명까지도 기대되었지만, 회담은 결렬됐음.

○ 미국과 북한의 북핵폐기 수준에 대한 시각과 절차 및 속도에 대한 차이를 드

러내면서 1박2일의 회담은 공동합의문 채택 없이 종결.

○ 트럼프의 단독 성명과 외무성 부상 최선희의 비난성 성명으로 종결된 후, 양국 정상은 많은 숙제를 남긴채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단절이나 원상 복귀로 가지는 않겠다는 긍정적 시그널은 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지난 2019년 5월 4일과 9일 잇달아 정체불명의 발사체 발사.(※ 2019년 5월 16일, 미국은 이 발사체가 ‘신형 탄도미사일’ 이라 발표함. 그러나 제재위반은 아니라고 천명함으로써 여전히 대화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었음)

2) ‘판문점 선언’ 과 결정적 전기

○ 북미회담 결렬 이후 현재까지, 남한의 대북특사 방북이나 남북4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아, 대북 화해 국면은 당분간 경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가이드라인은 ‘판문점 선언’ 이고, 따라서 남북협력과 관련한 모든 과제의 해법은 ‘판문점 선언’ 에서 출발하고 귀결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요약>

①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1.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2.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3.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4.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5. 8.15계기 아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6.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1.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2.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3.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③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1.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2.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3.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출처: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www.koreasurmmmit.kr)

(1) ‘판문점 선언’의 의미 분석

□ ‘판문점 선언’의 정치적 의미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은 어렵게 다가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이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음.

○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추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악순환하던 상황을 평화협력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남북 관계를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즉, 남북관계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정착과 연계하여, 근본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합의문임.

○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회담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 ‘판문점 선언’의 남북교류사적 의미

○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내용은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진행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1조 3항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와 1조 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를 주목해야 함.

○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1조 4항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

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북 사이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임.

○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포괄적 협력.

-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합의문에서 여러 세부 분야를 명기하였던 것과 달리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문구로 표현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한 부분은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남북 당국 간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

-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면적인 교류를 위한 토대로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판문점 선언’과 함께 이미 합의한 6.15, 10.4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임.

(2) ‘판문점 선언’과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시사점

□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판문점 선언’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합의문임.

- ‘판문점 선언’은 이후에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 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음. 이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 사이에 합의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2018년 5월 27일에 있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고, 6월 12일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언급하였고, 9월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선언함.

○ ‘판문점 선언’은 실천적 화해 협력의 선언.

- ‘판문점 선언’은 선언의 내용이 갖는 의미와 동시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에 이루어졌던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향후 남북문화교류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사항과 함께 기존의 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10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하여 빠른 발전을 도모하겠
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 ‘판문점 선언’ 실천 의지.

- ‘판문점 선언’을 둘러싼 남북의 행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또한 적극적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확인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음.

-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등 선행 조치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고수했던 ‘핵경
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음. 비
핵화에 대한 북한 내부의 승인 과정이었음.

3.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까지의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⁶⁾

1) 문재인 출범 이전,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

○ 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문화교류 양상은 체제우월성 선전을 위한 가식적이고 정략적인 상호 전시성 교류에 불과했었음.

○ “분단 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음. 1950~60년대에 걸쳐 남북 언론인 교류(1957), 제 17차 올림픽대회 단일 팀 구성(1958), 남북 공동 영화제작 및 연극경연대회(1965), 기자 및 과학자 교류(1966) 등 수 차례 북측에서 남측에 제의한 바 있으나, 이는 통일전선전략 차원의 선전성 제안에 불과했을 뿐 실천적 의지가 결여 된 공허한 것이었다.” (이우영의 <남북 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⁷⁾ 참조).

○ 이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는 1980년대 들어 남북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등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사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상호교환(1985)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음.

○ 1988년 남한정부의 ‘7.7특별선언’과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한기본합의서)>⁸⁾의 체결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 사회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출현과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후였다고 할 수 있음.

○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민족공동체 건설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음.

○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자료⁹⁾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문화예술 교류는 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적인 교류보다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정주영류경체육관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과 같은 대규모 체

6) 이 장은 김태만의 <남북중 협력 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 이현태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근간) 참조.

7) 이우영, <남북 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 플랫폼 p29-33, 2011.3, 서울.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sq=784&page=1&Q=&S=&sort=>

8) 1991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

9)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369641007>.

육 행사나 3.1절 민족대회, 6.15 남북공동행사와 같은 국경일이나 공동 행사에 부수된 예술 공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함.

[표 2] <2000년대 초반의 대중문화 교류>¹⁰⁾

시 기	제 목	주 최	비 고
1985.9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공연		남북 각50명씩 고향 방문 공연
1998.5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		
1998.11.7	제1회 평양 윤이상 통일음악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윤이상연구소 공동	
1999.12	평화친선음악회 평양공연	SBS	패티김, 최진희, 태진아, 설운도, ‘핑크클’, ‘젝스키스’
1999.12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평양공연	MBC,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00.5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8~17세의 단원 78명. 최초의 순수 민간교류에 의한 방한 공연
2000.8	금강산가극단 공연		
2000.8.18~24	조선국립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의 남북정상회담 축하 남북 합동연주회		6·15선언 기념
2001.2	창극 <춘향전> 방북공연		
2001.3	창극 <황진이> 방북공연		
2002.8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 북한예술단 공연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의 열연
2002.9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평양 합동연주회		
2002.9	재일조선학생소년 예술단 내한공연		
2002.9	MBC 평양특별공연, <오, 통일 코리아>	동평양대극장	이미자, 김연자, 윤도현 등 참가
2003.8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KBS	
2003.8	정주영류경체육관개관기념 통일음악회	SBS	조영남, 설운도, 주현미, 베이비복스, 신화, 바리톤 김동규 참가
2002.11	금강산가극단 남측 공연		
2005.6	가극 <금강>의 평양 공연		“6·15 통일대축전”의 문화 행사
2005.8	조용필의 평양 공연		

10)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서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2018.10.2.) 소개된 교류 경

2005.9	창작 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 광개토호태왕>	뉴서울오페라단	
2005.9	금강산 민속문화축전		
2006.4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2006.6	6·15공동선언 여섯 돌 기념 금강산 가극단 특별공연		
2007	북한가요를 남한 대중가수들이 불러 취입한 음.반 『동인』 발매		<휘파람>, <도시처 녀 시집와요> 등북한 가요 남한 노래방 보 급

[표 3] <2000년대 초반의 영화부문 교류>¹¹⁾

시기	제목	주최	비고
1985	신상옥의 북한 제작 <불가사리> 개봉		
2002	이두용 <아리랑> 제1차 시사회		평양국제영화관
2003	<아리랑> 제2차 시사회		
2003,4~5	북한영화 <살아있는 령혼들>	전주국제영화제 상 영	
2005	북한 영화 6편	부산국제영화제 초 청	
2006	남북합작 단편 애니메이션<새>	통일교육원	
2007	북한원작 <황진이> 영화화		
2007	KBS드라마 <사육신>		

○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교류협력¹²⁾도 진행되었음.

- 남북한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애니메이션 사업을 함께 전개했는데 그 중 2001년 말에 제작 완료된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남북한의 첫 애니메이션 합작 작품으로서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7개국에 수출했음.

-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남한의 ‘하나로 텔레콤’과 북한의 기술회사인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했는데 실제 작업을 진행한 주체는 당시 북한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관인 ‘4.26 아동영화촬영소’였음. 한국의 애니메이션업계는 국내 인건비의 부담으로 저임금 국가에 재하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북한의 제작비용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여 제작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03년 EBS 한국교육방송에서 방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뽀롱 뽀롱 뽀로로』는 남한의 아이코닉스(ICONIX)가 기획하고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과에 근거해 작성한 리스트임.

11) 위 통일부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 리스트임.

12) 송태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 국제평판의 쇄신>,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3, 통권 47호 pp. 119-146 참조.

와 한국의 ‘SK브로드밴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에 참여해 총 52편 중 12편을 만들었음. 2005년에는 남북이 제작한 『왕후심청』이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프로젝트 경쟁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히로시마의 오타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선정된 바 있음.

- 특히 『왕후심청』은 남북이 공동의 문화원형을 콘텐츠로 제작해 세계무대에 함께 진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다고 함.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화교류 전개 양상

○ 남북 문화 교류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완전히 소강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8년부터 다시 활기를 회복하고 있는 중임.

○ 3차에 거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예술인들의 상호 교환공연이 남북의 문화교류 재개의 시발점이었음.

(1) 문화예술 교류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2018년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16년 만에 남한을 방문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반갑습니다>라는 열정적인 노래와 연주에 남한의 관객들이 뜨겁게 화답했음.

- 이 공연은 예전과는 달리 ‘매우 뛰어난 오디오 믹싱’, ‘빈틈없는 조명연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상과 분장’ 등 준비가 돋보였음.

- 삼지연관현악단에서 두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오디오 콘솔(audio console) <Venue D’ show>와 <Yamaha LS9-32>을 가져와 오디오 믹싱을 직접했음.

- 마이크는 독일제 <Sennheiser MK-4>와 <Neumann MK-184> 40여대를 가져왔고, 그들이 직접 오디오 콘솔로 믹싱한 음향을 남한의 음향회사가 받아서 방송중계차와 현장 스피커(PA)로 송출했음.

- 세부적인 기교는 좀 떨어졌지만, 가수와 악기의 밸런스가 매우 좋았고 믹싱이 매끄러워, 오랜 시간 훈련해서 호흡을 맞춘 것으로 보임.

- 북측 현송월단장이 선발대로 방문했을 때 강릉아트센터에 이탈리아제 <Claypaky> 조명을 미리 요청했던 것도 북측의 수준이 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 독일제 무빙라이트 콘솔인 <MA-1> 1대는 직접 가져왔고 신형 콘솔인 <MA-2>는 강릉아트센터 측의 지원을 받았음. 국립극장 조명감독 한 명이 파견되어 총괄연출을 맡았음. 북측은 자신들이 지참한 도면대로 조명설치를 요청했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강릉아트센터의 조명을 콘솔에 세팅했음. 훌륭한 조명은 음악과의 조화를

이루었음.

- 공연도중 특정 악기가 연주할 때 화이트 조명이 그 악기를 정확히 찾아서 비추었음. 조명이 연주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작위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음. 가끔 출연자들의 피부 톤을 잘 맞추지 못하던 과거의 북한공연 조명에 비하면 일취월장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음.

- <달려가자 미래로>를 부르는 가수들의 복장은 파격적이며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음.

- 공연 엔딩에 사용된 ‘종이 꽃가루’와 LED 영상의 소스는 북한에서 가져 온 것임. ‘종이 꽃가루’는 2005년 <조용필 평양공연> 당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처음 선보인 것인데, 이후 북한의 공연에서도 자주 사용됨.

○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공연에 대한 감사의 답방으로 2018년 4월 1일 <봄이 온다>라는 제목의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이 진행됐음.

- 북측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등은 물론 백지영과 레드벨벳에 이르기까지 160여명의 공연단이 방북해 펼친 공연 교류였음. 이어, 4월 3일에는 남북한 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정주영류경체육관에서 있었음.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 무대는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였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음. 사흘간의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는 남북의 해빙을 상징하는 공연이었음.

○ 2018년 10월 6일의 평양 공연

- 『노동신문』은 <남측과 해외측대표단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이라는 기사를 통해 “10.4선언발표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측과 해외측대표단들이 5일 ‘5월 1일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하면서, “‘아리랑’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고 대형통일기가 게양되는 속에 시작되어 우아한 물동과 기백 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 정서와 높은 예술적 기교, 대규모의 배경 대화폭으로 황홀경을 펼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한편 남측과 해외측대표단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라고 당일의 분위기를 전했다.

○ 2018년 11월 19일, 국립국악원에서는 남북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북한음악 연주회’와 북한의 민속가극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음.

- 이러한 작업 역시 분단 이후 북한의 민족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통일 대비 한민족 음악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류의 큰 디딤돌 중 하나임. 이미, 2014년 ‘북한의 민족가악’과 2015년 ‘북한의 민족성악’,

2017년 ‘북한의 민족무용’ 등이 진행된 토대 위에 더욱 발전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임.

○ 2018년 12월에 제주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위한 <평화의 바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주제로 ‘남북 예술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 남북관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임.

○ 이상과 같이 대중예술 공연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의 교류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남북문화예술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에 매우 희망적인 여건임.

□ 문화재 공동발굴과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북한 간 문화예술 교류 중 또 다른 영역 중 하나로 ‘씨름’을 처음으로 남북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¹³⁾ 즉, 남북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각기 따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을 하나로 묶어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함.

- 그간 남북이 개별적으로 문화유산을 등재했던 관행에 비추어 “한민족의 동질성이나 정체성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는 매우 큰 진전이라 여겨짐.

○ 문화재 공동 발굴

- 2018년 9월에 착수하기로 했다가 미뤄졌던 ‘만월대 공동발굴’도 재개됐음.¹⁴⁾ ‘만월대 공동발굴’은 이미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가 중단됐던 것을 재개한 것임.

- 이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금속활자를 비롯해 꽃형 청자접시와 고려 시대 원통형 청자 등 유물 1만6천500여 점이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한 후삼국시대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철원성 유적 공동발굴 등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교류협력 사업임.¹⁵⁾

(2) 관광 교류

○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경제재제 해제와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은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

13) 『노컷뉴스』, 2018.11.26, http://m.nocutnews.co.kr/news/5066486#_enliple

14) <https://news.joins.com/article/22962867>

15) 2018년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하는 제13차 무형유산위원회정부간위원회 결정.

전에는 당분간 남북관광교류협력의 개선이 어려워 보임.

○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현실을 타개할 결정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북·미 3국 모두 문제해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음. 또한, 최근 발사체 발사 이후의 경색국면 속에 촘촘히 살아 있는 UN과 미국의 제재는 풀릴 여지가 없어 보임.

○ 미국, UN, EU 등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조치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현 정권의 외교력 집중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함.

□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지난 현시점에서 남북경협이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의 시작에서 중단 그리고 중단 이후의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는 것은 남북관광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적절한 방안 도출을 위해 의미가 있다할 것임.

[금강산 관광]

○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1988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교류와 협력은 지금까지 인적, 물적 교류 측면에서뿐 아니라 협력사업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특히, 북한 지역의 관광 사업¹⁶⁾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음.

○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¹⁷⁾은 형식적으로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졌음.

- 금강산 관광사업은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 남북 간 신뢰 회복,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통합) 및 세계평화 촉진, 관광 사업을 통한 남북 간 민간교류 확대 및 북한의 경제 자생력 향상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1142&cid=46629&categoryId=46629>. 『남북관광협력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7) 지난 시기 금강산 관광사업의 누적관광객 수는 금강산 195만 명(1998.11-2008.07)이었고, 개성역시 10만 명(2007.11-2008.11)에 달했다. 북측의 인력 1천5백여 명(식당 봉사 550, 관광지 운영 250, 호텔, 문화 및 공연 150, 상품판매 50여명, 공사인력 등 100여 명)을 상시 고용했고, 금강산 현지의 남측 및 제3국 직원도 1,262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가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종 NGO 단체의 대북사업 대화 장소 제공 및 진출 통로로서의 의미도 매우 중요했다. 즉, 이를 통해, 농업, 축산기술 전수, 보일러 보급, 연탄나눔, 나무심기운동, 치과진료 등 생활개선 및 지원 사업은 물론 신계사복원, 남북대학생 토론회, 평화한마당 등 다양한 공동문화 행사 개최(DMZ세계평화공원) 등 다양한 문화 교류 및 복원 사업 진행됐다. 이로 인해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대륙진출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다.

○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 발생으로 중단되고 말았음. 그후, 여러 차례 현대차원과 정부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관광재개 노력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재개되고 있지 않음.

- 이를 통해 연 30만 명의 남북 관광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 경협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음.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통일신작로 역할을,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협 활성화와 동북아 중심 건설 구상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했었지만, 10년 만에 중단되고 말아 매우 큰 아쉬움을 남겼음. 원래 현대 아산은 2000년 8월에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개성 등을 관광지로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을 제의하여 북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백두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음. 2003년 8월에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백두산 일부 지역에 한해 관광을 일시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음.

- 이후 5년간에 걸쳐 진행된 백두산 지구 일대의 건설 사업으로 삼지연, 무봉, 포태, 이명수 지구 등에 3,000여 채에 이르는 주택이 들어섰고, 삼지연 지구에는 백두관 등 다양한 문화회관이 건설되었음. 2005년 연인원 35만 명에 불과했던 백두산의 중국 지역 관광객 수는 2011년 140만명, 2012년 167만명, 2013년 157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¹⁸⁾는 보도도 있음. 이러한 관광협력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상호 동질성 회복은 물론, 관광 수입 증대로 북한 경제 회복과 통일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음. 더불어 정치 군사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기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2018년 11월 18~19일 금강산에서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금강산관광 시작 20돌 기념 남북공동행사’는 10년 넘게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이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음.

○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 관광 재개가 바로 추진되기보다는, 선행조치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금강산 지역 개최 등이 전개될 것으로 여겨짐.¹⁹⁾

[개성 관광]

○ 남북한의 관광협력 사업 중 금강산 관광 못지 않게 개성 관광 역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음. 2007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 공단 역시 공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동시에 개성관광 시대를 열었음.

- 개성 관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위원회와 현대아산 사이에 체결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였음.

18) <https://www.nocutnews.co.kr/news/4085582>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92226015

공업지구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 그리고 상업도시로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에서 개성까지 육로를 놓아 관광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었음.

- 고려의 수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존재하는 개성과 서울 사이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징인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계선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 등이 위치해 있어 관광 상품으로 개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개성 공단은 분단 이후 남북 최초의 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협력이 실현된 지역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돼 있는 상징적 공간임.

○ 2016년 2월 10일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포는 남북 관계 경색의 절정이었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교류나 협력의 측면이 완전히 단절되며, 그곳에 근무했던 근무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음.

- 개성공단 폐쇄는 일자리 부문 감소 측면 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북한 측과의 타협을 우선시 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짙었음.

□ 지자체 중심의 대북 협력

○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교류협력 추진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과정에 충실하며 차근차근 진행해 가야 할 것임.

○ **경기도** : 그동안 추진해 온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시범공동 운영, 문화·스포츠 교류 활성화, 축산·양묘 등 공동사업 추진,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개최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⁰⁾

- 다가올 환(環) 황해경제권, 동북아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권의 개발축을 이룰 것으로 보여져 정치·경제·문화 등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북방교역의 전위기지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남북교류 및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 북부지역** : 남북 간 경제교류의 확대 및 남북 간 인구와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지역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그러나 경기 북부지역은 다양한 개발제한 제도로 꿈쩍없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주요 무대로서의 역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이 지역은 경기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광대한 규모로 이 중에는 철저히 보존해야 할 곳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곳이 엮여 있으므로 면밀한 현황조사가 있

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7500046&wlog_tag3=naver,

은 후에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환경 친화적 개발을 허용해야 할 것임.

○ 강원도 : 국내 유일의 분단 도(道)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남북 강원도 연구회’를 창립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2020년 사업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말라리아 공동방역과 결핵퇴치사업, 송어양식장 건립지원사업, 금강산 공동 영농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동계스포츠 교류 및 북(北) 강원도 지역인 원산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희망.

- 이 연구회는 남북 강원도 문화,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강원도 평화지역 조성, 그리고 예술인 교류를 통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음.²¹⁾

○ 부산시 : 오거돈 시장 역시 2019년 11월 개최확정된 아시아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적극 고려 중임.

- 부산시는 2018년 11월 4일 평양방문 당시 시장이 제안했던 ‘부산시 남북교류사업서’를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만물류 도시협의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 중이며, 계속해서 부산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부산이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관문 공항인 신공항 건설로 하늘길까지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음.²²⁾

- 아울러 부산발 유럽행 유라시아 철도운행, 남북공동영화제 개최, 스마트시티 협력 등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등의 추진도 논의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부산이 일본의 후쿠오카와 니가타 그리고 북한의 함흥과 원산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공동체’를 구축해 담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²³⁾는 것도 주목할 만함.

○ 이 밖에, 경상남도과 제주도 등 각 지자체들마다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에 문화예술관광 교류 아이템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 남북 관광교류협력 강구

○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힘입어 기획되는 남북 관광 교류가 자본의 힘에 기댄 무분별한 산업화의 오류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중하고 지속발전가능한 방안이 제출되어야 함.

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9042>

22)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67>

2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1116.22005006609>

○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라는 용어가 습관적/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는 있지만, 냉철한 성찰이 절실히 보임. 왜냐 하면,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광 교류협 력은 이른바 ‘쌍방향 관광교류(Two way tourism)’ 와는 다소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임.

○ 남측 주민들의 일방적 북한 관광에만 머물러 있던 기존의 관광패턴의 변화가 절실. 기존의 관광교류협력은 대부분 남측 기업이 자본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자원 환경이나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음. 따라서, 신개념 남북관광교류협력 은 남측 주민들이 북측으로, 북측 주민들이 남측으로 쌍방향 관광을 진행할 수 있 는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지만, 당분간 해결은 요원해 보임.

○ 이러한 시도들이 남북관광교류와 협력에 새로운 물적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함. 당장 북한이 남한의 관광 교류 협력에 문을 활짝 열 가능성은 매우 낮음. 따라 서, 중국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투어’ 등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관 광 교류 현황을 주목해 제3국을 통한 교류협력 방안을 토출할 필요가 있음.

[표 4] <북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여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²⁴⁾

여행사	아이템(RMB 가격)	특징	비고
단둥구주국제여행사(丹東九州國際旅行社) ²⁵⁾	평양-개성-판문점-묘향산 4박(2300, 2700 등). 신의주 1박2일(1280), 1일(750), 개성-평양-판문점-원산-금강산 5일(3690)	단둥 출발, 평양 3박(5성급 호텔). 개성 연회(북한 신선로, 냉면, 불고기)	김용여행차(金龍旅行車) 침대칸, 최고의 안전보장
잉커여행(盈科旅游) ²⁶⁾	상하이 출발, 항공왕복 4박5일(4880~5630)	상해(푸둥)-평양-묘향산-개성-남포-상하이	베이징 또는 항조우출발(4450) 등
C-Trip(携程) ²⁷⁾	베이징 출발, 평양 4박(3000)	평양(김일성 박물관, 만경대, 소년궁, 조선개신문, 우의탑, 만수대대기념비, 주체사상탑, 평양 전철)-판문점-개성(고려 박물관)-묘향산(국제 우의 발전관)	
신신여행(欣欣旅游) ²⁸⁾	베이징 출발, 평양-묘향산-남포-개성 5박(4680)	베이징-평양-묘향산-남포(청산농장)-개성(고려인삼)-베이징	
랴오닝성 모(某)북한전문여행사 ²⁹⁾	한국거주 또는 한국 출발 외국인 대상 독점 특화	NO VISA(관광증으로 대체), 특별전세기 이용 서해항로 평양행	2018년 7월 북한, 2018년 11월 남한 선우항공여행사 계약 체결
영파이오니어투어스 ³⁰⁾	‘All Koreas Part 3’ 남북분단 체험. 북중접경지	단둥 출발, 속초-고성-철원-판문점-청와대 등(1주일) 코스와 베이징 출	2019년 6월 실시 예정 발표

24) 인터넷 상에 소개되어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내용을 참조해 작성한 리스트임.

	대, 남북접경지대 투어를 통한 분단 체험.	발, 텐진(天津)-선양-단둥-신의주-선천-신안주-평양(K27/28 철도 이용). ① 신의주의 중심광장, 민속공원, 화장품공장, 압록강공원, 김일성 동상 등(당일치기, 750). ② 나선특별시의 나진, 비파도(1박2일). ③ 평양-개성-판문점-38선-묘향산(3박4일, 3000) 등 3종 출시	
--	-------------------------	---	--

□ 무궁무진한 북중 관광 교류협력의 사례와 아이템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백두산 동쪽의 ‘무봉국제관광특구’는 북한이 중국의 허룽(和龍) 시와 함께 관광특구 건설사업을 추진한 예임.³¹⁾

○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관광루트가 개발되어 있음. 우선 지역적으로는 북중 경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의 세 지역을 예로 들 수 있음.

두만강 지역 : 2009년 두만강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 중국정부의 국가전략으로 승격된 두만강 지역으로 중국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을 주요 관광대상 국가로 지정한 이래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임. 특히, 북한 나선시로의 무비자 여행 개시에 이어, 훈춘(중국)-나선(북한)-블라디보스톡(러시아)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코스가 개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수요는 폭증 추세에 있음.

압록강 하류 지역 : 2009년 7월 1일, 중국정부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요녕(遼寧) 연해경제지대 발전전략’ 승격시킴에 따라 압록강 인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이에 따라, IT산업, 관광과 농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상정한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경제개발구가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북한은 ‘나선경제무역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구법’을 정비해 중국의 대북한 투자협력에 대비했음.

백두산 지역 : 2012년 10월 10일, 중국 길림성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북한 국가관광 총국은 평등과 호혜주의의 원칙하에 백두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음. 이에 따라, 중국 측은 백두산을 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 나누어 개발·관리하고 있고, 북한은 동파구를 관리하고 있음.

25) <http://www.3149111.com/>

26) <http://hangzhou.c2bttrip.com/xianlu/4797642>

27) <http://you.ctrip.com/journeys/NorthKorea100103/504812.html>

28) <https://www.cncn.com/xianlu/816684595558>

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711_5-07112018084743.html

30) <http://news1.kr/articles/?3485285>

3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1374&ref=A>, 중국 지린(吉林)성 관광구과 허룽시가 합작해 무봉관광특구 1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시작된 북한 지역 백두산 관광코스로 2015년 7월 15일 오픈됐다.

○ 이들 지역과의 연계관광 루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음.

연변 기점 : 훈춘-나선 2일버스관광, 훈춘-나선 3일자가용관광, 도문-북한남양-청진-칠보산 4일호화열차관광, 용정-북한 혜령-청진-칠보산 4일버스관광, 화룡-북한백두산동파-무봉관광특구 3일버스관광, 훈춘-블라디보스톡-나선 3국순환관광 등과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연길-평양-금강산(묘향산)-개성-판문점 전세기 관광과 훈춘-나선-금강산 호화크루즈관광(현재는 중단) 등도 있었음.

단동 기점 : 단동-신의주 1일관광, 단동-신의주-묘향산 3일 버스관광,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개성 전세기 관광, 단동-평양-개성-판문점 3일 열차관광, 단동-평양-개성-묘향산-남포 5일 열차 관광 등이 있음.

중국 심양(瀋陽) 기점 : 심양에서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으로 베이징-평양 간(월~일요일) 매일 1회 운행하며, 이를 통해 베이징-평양-금강산-개성-판문점 관광이 이루어짐. 심양-평양 정기항로를 이용한 관광루트로 묘향산, 개성, 판문점 관광(매주 2회, 수·토)도 있음.

4.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남북문화교류 협력 전망

○ 한반도에 이전의 냉각상태를 벗어나 다시 훈풍이 불어오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게 남북 간 문화예술 교류협력도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상황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이 연계 협력해 공생공존의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라는 점임.

1) 문화예술 교류 전망

(1) 대북 인식 전환

○ 북한과의 교류에서 문화예술이 선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 문화예술 공연이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과 상호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임. 다만, 북한사회에서 문화예술 공연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처럼 상품화되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공연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남북한간 공연교류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가 시스템을 벗어나 일반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임.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그랬듯이 문화예술을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정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 우월성의 선전 및 강화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목표³²⁾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응해 왔음.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조응해 가고 있어,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유력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임.

○ 최근, 남북 간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힘입은 바 큼.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음.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남한의 유명 연예인들이 북한에서 공연했고, 북한 역시 과거에 전례가 없었으리 만큼 여러 차례 남측으로 예술단을 파견해 공연했음.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아이스하키와 아시안게임. 농구에서 남북 단일팀 구

32) 조상우,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2018, vol.19, no.3, pp. 223-248 참조.

축 등은 남북한 상호 갈등을 없애고 남북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시금석 역할을 했었다고 여겨짐.

○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북한영화와 영화인의 초청 그리고 향후 기획되고 있는 북한 영화와의 기술적 협력을 통한 공동제작 등도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대북 인식 전환 프로세스 강화 필요

○ 우리 사회 내면에 상존하고 있는 부정적인 대북인식은 여전히 문제임.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이 절실함. 막대한 북한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개발가능성 등이 곧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공유할 때 대북인식의 변화가 생겨날 것임.

○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맹목적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각심은 필요함.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문화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문화접변은 계속해서 이어져갈 것임. 북한과 중국 간에 형성되어져 있는 사회문화적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촉과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함. 즉,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현대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을 수 있음.

□ 스마트시티 협력

○ 스마트시티 협력을 비롯해 각 분야에 걸친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데 남측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한반도의 남쪽의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이 시발점이 된다면 육로와 해로 두 가지 길을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됨. 즉, 육·해상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루트 활성화로 귀결될 것임. 이는 한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남북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다양한 아이디어들

① 북한 아이스서커스단과 한국의 아이스발레 합동 공연 : 2020년 2월 18일은 평창동계 올림픽 2주년. 남북 빙상경기와 더불어 대중적 종목도 시선 주목가능. 중국 하얼빈 빙동제에 출연한 북한 아이스서커스단연의 빙판위 줄넘기, 공중곡예 공연

등은 대단한 기예 수준으로 남한 관중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함.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 활용방안 제공 및 장기공연을 통한 남북 상호 공감의 기회 극대화 가능.

② 남북 시인의 정기적 만남으로 시를 통한 남북 정서 교감 : 윤동주 시인처럼 북측 출신으로 남측에서 활동했거나, 남측 출신으로 북측으로 간 시인들을 공동 발굴해 상호 교환 낭송회를 진행함으로써, 상호이해 증진 가능.

③ 남북공동음악제 :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체류 해외동포 음악인을 초청해 DMZ에서 공동음악회 개최.

④ 남북 공동뮤지컬 공동 제작 : 예로, 남과 북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역사인물을 소재나 주제로 한 <최치원>, <백석> 등.

(2) 남·북·중 협력 통한 돌파

□ 남·북, 북·중 관계를 묶어 남·북·중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UN 등에 의한 어떠한 제재도 완화되거나 폐지된 바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관한 실행도 불가능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상호 공연교류나 방문 외에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협력을 통한 방법밖에 없음.

○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또한 북·중간 교류협력이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분명함. 때문에, 남북간 혹은 북중간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남·북·중 공동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여겨짐.

○ 북한은 현재, 자금과 기술 및 운영노하우에 대한 외부 역량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를 적시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남과 북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임에 분명함.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향후 완화되거나 폐지될 지도 모를 대북제재를 미리 전제적으로 대응해 중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북한 참여를 이면 계약으로 합의해 두는 것도 방식일 것임. 북한을 참여시킨 한중 교역, 그리고 신의주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의 3국 협력 등이 남북중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정치·군사·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해온 네트워크들이 작동하고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북한과

중국관계를 안정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교류 역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음. 무엇보다도, 남북중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절실함. 물자와 사람이 교류할 때 접변이 발생함.

○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연결은 그 상징성에 비해 실질적 의미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

- 우려했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³³⁾가 해제되고 미국이 동의한 선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움. 남북철도가 연결된 이후, 서울역, 광명역, 삼성역, 부산역, 목포역 중 어느 도시가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이 될 것임. 결과적으로 남북철도연결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함.

-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으로 부산에서 북한을 이어, 중국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부산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직접 갈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임.

○ 그리고, 또한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남한의 역할이 중요함.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이동하는 유라시아 철도를 운행하는 것과 함안과 조선에 있어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남한이 북한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임.³⁴⁾

2) 관광 교류 전망

(1) 당장 가능한 관광 아이템

○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이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들어남. 김 위원장은 원산갈마지구와 삼지연군의 리조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독려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음.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개설한 ‘조선관광’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관광 산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관광산업은 자본을 투입하는 남측이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북측이건 양측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음. 그런 측면에서 ‘분단국가의 남북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재개³⁵⁾는 매우 절실한 사업이 아닐 수 없음.

33) 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8-09-13-0049,

3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3010007710>

35)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항의 합의를 채택했다.

○ 현재 북한은 제재완화만 되면 관광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개방 정책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는 실정임. 다만, 남북한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의 역할을 끌어 들이는 지혜가 필요함.

①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조기 재개

○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강산호텔 등 임대료 정산 문제 등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개성관광도 동시에 재개되어야 함. 지리적으로 가깝고, 남북경협현의 현장인 개성공단은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고려의 도읍지로 본격화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당일 소풍 및 수학여행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일반인들에게도 역사기행 및 송악산 등의 당일코스 여행으로 인기 높을 것으로 여겨짐.

- 현재의 UN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보다는 개성관광의 재개가 현실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개성관광은 쟁점이 많고 시설 보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금강산관광보다 쉽게 재개 가능함. 개성관광은 기존 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고 당일관광으로 안전에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임.

- 남북 간 신변안전문제만 해결된다면 1개월 이내에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함. 또한 개성관광은 북한과의 신뢰 회복, 개성공단 재개 기반 조성,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관계 전반에서 심리적면에서 긍정적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② 백두산 관광 :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백두산 관광에서 보듯이 금강산과 개성관광 복원 후 백두산천지 삼지연관광(2009.8월 합의)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 피치 제공 가능, 활주로는 포장된 상태임. 유도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일단 우선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DMZ평화생태 관광 : 철책이 걷히고 지뢰제거가 진행되고 있는 DMZ평화생태 관광

④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 북측이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관광단지 조성중.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근의 마식령스키장, 금강산관광과 연계성이 높으며, 현대식 공항이 있음.

⑤ 산악관광 : 북한에는 해발 1500M이상의 산악이 70여 좌에 달함. 묘향산, 칠보산, 등 북한의 명산관광 도 가능함.

⑥ 크루즈관광 : 크루즈를 통한 해양관광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산 해양리조트를 겨냥한 부산-원산간 크루즈 개통으로 동해안의 해양관광을 활성화³⁶⁾할 것도 제안함.

⑦ 캠핑카 관광 : 500대의 캠핑카를 활용한 소떼 방북 재현

- ‘모빌홈(캠핑카, 카라반, 루프트탑, 트레일러 등)’ 500대가 개마고원에서 캠핑하는 ‘캠핑 소떼’ 프로젝트임.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방북했던 행사 재현으로, 캠핑카 500대가 일렬로 관문점을 넘어 개마고원을 향하는 스펙타클한 대형 이벤트임.

- 500대의 캠핑카가 휴전선을 넘는 모습만으로도 남북 교류 재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음.

- 남북 교류가 재개되어 북한여행객이 늘어나도 남측 여행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북한의 숙박과 식당이 태부족임(‘조선관광’ 홈페이지 기준 북한의 숙박 시설은 유명 관광지에도 호텔급 숙소 한두 곳이 고작이고, 기존의 북한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많은데 숙박 시설이 적어 당일 여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 아웃도어 여행은 북측에서 캠핑장 부지에 최소한의 오페수 처리 시설과 개수대만 설치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캠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2)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 최근 발간된 북한의 자료³⁷⁾에 의거하면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 매우 다양한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가운데, 관광개발만을 위해 6개소의 국가급 및 지방급 관광특구를 조성 중에 있음.

○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앙급(中央級)개발구와 도급(道級)개발구로 구분되는데, 중앙급으로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9개에 달하는 지대 또는 시범구가 있고, 도급으로는 자강도의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함경북도의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그리고, 량강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와 혜

36) 윤인주·홍장원·이정아 저,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개발원, 2018.11, 부산.

37) 차명철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 107(2018)년 11월.

산경제개발구, 평안북도의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청수관광개발구, 강원도의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의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농업개발구, 황해북도의 송림수출가공구와 신평관광개발구, 평안남도의 청남공업개발구와 숙천농업개발구 그리고 평양시의 강남경제개발구와 남포시의 와우도수출가공구 등 총 8개 도(道) 2개 시(市)에 해당하는 도합 19개 개발구가 있음.

○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의 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 평안북도의 청수관광개발구, 황해북도의 신평관광개발구 등 관광과 관련한 6개소의 개발구들임.

[표 5]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대>³⁸⁾

급별	명칭	위치	면적	업종
중앙급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강 원 도 (원 산)	440km ²	생태환경 보장의 국제적 휴양 및 치료관광, 역사유적 관광
중앙급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225km ²	금강산 관광
도급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69km ²	골프, 수영, 경마, 관광서비스
도급	무봉국제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	20km ²	백두산지구 참관 및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서비스, 관광상품생산
도급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사주군	20km ²	압록강유역 자연지리 조건 활용한 관광서비스
도급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8.1km ²	명승지 유람 탐승 및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

○ 이들 관광지가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2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법률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할 때, 특히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우선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여짐.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년 6월 8일에 “국내에서 특수경제지대들의 개발을 다그치기 위하여 투자가, 민간단체, 비정부기구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촉진하며 국내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방조하는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조직했다고 함. 이를 컨텍포인트로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한 남북관광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현재로서 남북 관광은 여전히 제3국 여행사에 의해 진행되면서 남북한 주민을 배제한 제3국 관광객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 보임.

- 이를 위해 더 많은 남북중 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함.

38) 차명철의 앞의 책을 참고해 작성한 리스트임.

3) 남북교류협력의 선행 조건

□ 문제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남북협력관계의 단계적 진행에 따라 사안별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절실.

○ 이밖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은 결국 다시는 남북관광이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임.

○ 아울러 사업자의 입장에서 역시 중단 방지 장치 필요함. 결국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사업 지속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법, 제도적 정비 등 남북관광교류 기반 공고화
-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유사 사태로 중단 재발 방지 (국회)
- 독점사업자의 인정 범위 (북측, 남측) 현대아산의 독점권, 한국관광공사의 독점권
- 공동투자, 공동관리-RISK 분산 필요
-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부, 북한의 담당 분야 및 업무 확정.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
- 전기, 통신, 도로, 출입사무소 등 정부의 순기능 역할 필요성
- 관리위원회 신설
- 중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자본 동참 유도 (안정화 담보)
- 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북한의 적극 참여 환경 조성(원산갈마비행장 : 여객기 12대 계류장, 3,500m 활주로, 일 3~4천명, 연 120만 명 수용 가능 규모 약 2억 달러 투입 추산. 마식령스키장(1,400만㎡))

5.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남북문화교류 협력의 단계별 추진과제

1) 대북제재 하의 남북문화교류 추진 원칙과 방향³⁹⁾

○ 현재의 대북제재가 남북문화교류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제재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향후 전개될 남북문화 교류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5.24조치를 포함하여 대북제재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남북 사이에 문화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적 왕래는 물론이고 다양한 물적 자원의 반입과 반출이 요구되는데,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남북문화교류의 추진 단계는 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규제조건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

○ 현재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으므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협력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북제재 또한 완화와 해제로 이어지는 변화가 예상됨.

-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다고 해도 대북제재의 해제로 곧바로 이어지기보다는 군사훈련 중단 등의 적대적 행위 중단 등의 군사적 위협 제거가 우선일 것임. 이후로는 예외 조치의 확대, 점진적 해제의 단계로 전개될 것임.⁴⁰⁾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개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일정 정도의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남북 사이에 현안인 개성공단 재개,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 ‘판문점 선언’ 이후 전개될 남북문화교류 사업은 ‘판문점 선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단순히 남북 사이의 합의에 의해 교류협력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39) 박영정·윤지연의 앞의 보고서 참조.

40) 전영선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18년 여름호(한국수출입은행 2018, 57쪽). “판문점 선언”에서 의미하는 ‘남북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당국자 인지’가 중요하다. 민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당국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당국자는 민간교류 분야와 관련한 당국자가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언어 체육 관광 산림,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과 관련한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이 당국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관련부처와 남북관계 주무 부서인 통일부로 구성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통일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문화 협력 사업을 해당 주무부처와 통일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 남북문화교류 복원 과정에서부터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출발해야 함. 남북 정치적 상황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확장 전략이 필요함.

○ 향후 남북문화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 ‘현실적합성’ ‘원칙성’ ‘국제성·보편성’ 등 네 가지의 원칙과 방향이 전제되어야 함.

① 남북문화교류 추진 4대 원칙

전문성	전문성에 기초한 주무부처의 역할 조정	남북문화교류가 전면화할 것을 전제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전개될 정세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남북 문화교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주무부처의 역할이 필요함.
현실적합성	현실적합적 교류협력 정책 개발	문화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되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함. 북한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상호 협력적 차원의 공동 발전의 축에서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함.
원칙성	문화교류에 대한 원칙 합의	정치적 상황과 거리가 있는 개성만월대 발굴 복원 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과 같이 민족문화유산 분야를 비롯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필요함.
국제성·보편성	국제적 보편적 기준 준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특수한 상대가 아닌 일반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 관계의 틀이 적용되어야 함.

② 남북문화교류의 단계적 추진 전략

○ 남북문화교류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아 향후 여러 가지 형태의 난관과 애로가 예견됨. 따라서, 상황이나 조건에 조응하는 단계별로 구분해 추진해야 할 것임. 단계에는 크게 평화협력 단계와 번영협력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평화협력 단계

○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구축, 북미수교 등이 실현되기 전의 남북문화 교류는 남북미 사이에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추진 중인 상황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모멘텀을 이어가되 평화협력 프로세스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 평화협력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북제재의 완패 또는 해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도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가동중

인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일본의 독자 제재, 남한의 독자 제재 및 5.24조치 등이 중층화되어 있음.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이완 조짐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임.

- 대북 제재의 한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본격 재개시기에 대비⁴¹⁾

-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자원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인적 접촉 중심의 교류 사업(회의, 워크숍, 컨설팅, 조사, 방남시찰단 등) 우선 추진 가능. 방북 사업 보다는 방남 사업 중심으로 추진 고려.

○ 교류협력의 상대인 북한의 변화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10여 년 전의 인식을 토대로 대북사업 재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교류협력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남북문화교류를 준비해야 함.

○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민간교류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평화협력 프로세스에 맞추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추진할 필요.⁴²⁾

- 현단계 대북사업의 전략적 목표는 평화 협력 프로세스의 성공에 있음.

- 실제 현재 진행되는 예술공연 교류나 공동행사 등은 대부분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정상화 방향으로 남북문화교류 추진

○ 그렇지만 평화 협력 프로세스 이후의 남북문화교류는 10여 년 전의 교류와 협력의 복원이 아닌 전면적이며 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앞에서 살펴본 전면적 교류협력 시기에 대비한 준비 과정 또한 이 시기 남북문화교류의 중요한 사업 분야임.

- 준비 과정에서 남북 협의는 필수 과정

41) 전영선, <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모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남북 교류협력의 재조명』 (늘품플러스, 2015), p180.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안정성을 위한 사회문화협약(협정)의 체결과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문화적인 개성공단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대의 문화교류는 기존의 문화교류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경험 부족, 사업자 간 과당경쟁과 정보 교류·협력 부족에 따른 공공기관의 설립 필요성 민간기업의 후원활동 감소 등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문화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다.” 박영정 외,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p32~33.

○ 제재 완화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전면화 시기에 대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이전 시기 교류처럼 일회적 단위 사업 중심의 교류가 아닌 전략적 방향성 위에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현 제재 국면은 본격적인 남북문화교류 준비를 위한 시간벌기에 해당교류협력의 방향, 목표,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 계획 마련.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분야의 분야별 추진 계획 마련도 필요

○ 남북문화교류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제재 조건을 지키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남북 문화교류 가운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분야를 설정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

- 문화유산분야의 경우 예외 인정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문화교류의 영역을 크게 문화유산분야,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대중 문화)분야로 나누어 볼 때 우선적인 교류가 진행될 분야는 ‘문화 유산’ 분야가 될 것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추진했던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사업’을 비롯하여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사업, 개성한옥마을 보존 등의 협력사업은 명분이나 경험에서 우위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 분야, 문화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임.

□ 변영협력 단계

○ 현 단계의 비핵화 평화협력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변영협력 프로세스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가정 위에 논의 전개

○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외에도 2007년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주요 협력 사업이 대부분 추진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전면적인 남북문화교류 추진

○ 남북문화교류 또한 현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변영 협력 프로세스 단계에서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물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들어갈 것임.

□ 예상 프로세스

사업분야 확대	교류협력의 사업 분야가 대폭 확대되어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에서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야 함. 그동안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특정 부처나 기관, 단체, 회사의 전담 업무였다면, 이 단계에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남북 사업을 고려, 추진하는 단계로 바뀌게 될 것임.
---------	--

민관협력 모델	사업 추진 체계도 그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전환이 필요한 민관 협력 모델을 갖추어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정부 부처의 경우 통일부 주도가 아닌 개별 부처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담당 하게 될 것임. 사업 자체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정부부문에서는 관련 환경의 조성에 주력해야 함.
채널다변 화	교류협력 채널 다변화는 필수적인 요건임. 북한의 경우도 민화협 등 소수의 기존 대남사업 창구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각 분야 사업단 위 끼리의 직접 교류와 협력이 주된 형태로 전환되면, 기존의 남북 사업 창구는 관련 민원 부서가 될 것이며, 실제 사업 창구는 좀 더 다변화되어야 할 것임. ※ ‘조선경제개발협회’ 등
고 도 화 사업 방 식	교류협력 방식의 질적 고도화가 예상됨. 사업 참여 주체가 확장됨과 더불어 사업의 추진 방식에서 일회적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형 사업이 주를 이룰 것임. 북한 내 시장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 분야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사업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됨. 남한의 대북 지원보다는 투자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추구가 사업의 기본 성격이 될 것임.
대북정보 확대 및 절차간소 화	교류분야의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추구되면 기존의 북한 전문가보다는 남한 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남북사업의 주요 주체로 활동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대북 사업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해 보임. 새롭게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활성화하게 될 것임.
분 야 별 시범사업	제재 완화 초기에는 분야별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최적화된 교류협력 추진 방식을 마련한 후 경험을 교류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남북 상호간에 영점 조정의 시기 필요. 문화체육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발전의 발판이 되었던 사례 참조.

○ 북한 지역의 개방으로 새로운 국제화 시대의 도래를 예감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남북 왕래 여건이 개선되어 외부 세계에서 북한 지역 방문 및 투자 활성화 되고, ‘거대 장벽’ 이 제거되어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지리권으로 연계 통합될 것임. 이에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대륙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신한반도체제, 신국제질서에 의한 경제, 문화 활동의 대전환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게 되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사회통합, 문화통합 등 장기간에 걸친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 공유자산(문화유산, 자연자원 등)의 활용과 공동협력에 의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도 절실하다. 평화번영시대가 오면 남북한 사이의 자유왕래는 물론 사회 전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주지하다시피, 현재 남한 사회 내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분단 이후 형성된 이념갈등에 뿌리가 있음. 한반도 평화변영의 새 시대가 전개되면 이념 갈등에서 오는 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그렇지만 제도적 장치만으로 사회 구성원에 내면화된 이념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보장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통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2) 새로운 한반도 문화교류 협력 전략

(1) 단계적 고도화 추진

○ 평화변영의 시대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를 평화체제 구축 이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남북 연합국가 시기의 3단계로 추진 단계를 설정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고도화

첫째 평화체제 구축 이전 단계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국제 협상(특히 북미협상)에 집중하여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상황 전개에 도움이 되는 남북문화교류 등에 집중

둘째,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는 민간단위 남북문화교류의 다양화, 다채널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문화분야 협력사업 추진

셋째,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면 남북한 인적 교류는 물론 협력사업이 본격화하고, 국가 통일 시기의 문화통합을 준비

(2) 남북한 공존협력의 평화문화 조성

○ ‘잃어버린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북한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공존의 문화를 생성해 나가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 분단, 냉전 체제의 유산을 새로운 평화문화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 국제적 차원의 평화문화 프로젝트 개발, 운영

○ 그 토대로서 중요한 것이 남북한 내부에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상대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 증진 노력을 병행

○ 남북 공유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

- 70년 이상의 분단과 적대적 대결 속에 이질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역사문화자

원을 비롯한 남북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
-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평화체제 구축 이전 단계에서도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3) 새로운 한반도 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

(1) 남북 공유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류협력 확대

○ 70년 이상의 분단과 적대적 대결 속에 이질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남북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평화체제 구축 이전 단계에서도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유적 공동 발굴 : 만월대 발굴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 평양의 고려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리에 관한 협력 추진 필요
- 철원지역 DMZ에 소재한 태봉국 철원성 발굴 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 역사문화유산 주제의 인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무형유산 보존 및 관리 : 북한 소재(연고) 무형문화유산 발굴, 보존, 활용 등 남북협력 확대

- 2018년 씨름 사례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남북공동등재 목록 확대

(2)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세스 운용

○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학습 필요성이 강조됨. 통합을 둘러싼 개념정의부터 복잡하고 요원할 것이므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전제로 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간 상호 교류 소통을 위한 토대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문화를 통한 이질화된 문화 개선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라는 대(大)주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 필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함.

- 학술대회와 세미나, 강사 교육 프로그램 방안 도출
- “북한문화 바로알기 순회 토크콘서트” (교육적 토크콘서트 사례 중 문화 분야 주제로 북한 사진, 북한 영화, 북한 여성, 북한 교육 등 다양)

- 북한의 문화예술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학술심포지엄, 교과서 개편 및 남북한 용어(개념) 사전 출판
- 북한문학 출판 지원
 - “북한문학 함께 읽기 모임.” (기 출판 도서 미미)과 연동
 - 도서관 비치용으로 초판 2천부 정도를 구입해 주는 방식의 지원
 - 북한의 저작권 문제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 여부 타진
- 공존의 언어문화 정책
 -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성과물 조기 완성 및 이를 기반으로 언어규범, 자판통일, 지역어 수집 및 보존 등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확대 시행.
 - 남북연합 이전 시기일지라도 남북언어통일 선행
- 북한문화 전문가, 기획, 예산에 확보 방안 제안 등
- 북한과의 직접 교류협력이 어려울 경우 우회로로서의 재중 동포 활용 방안
 - 특히 북한 접경 지역 재중 동포들과의 협력 방안 조사

(3) ‘북한 바로 알기 대중화 프로그램’ 병행

- 전시 : 사진전, 그림전시회(호랑이그림전시회), 일제하 공산주의자(ex, <낙동강>의 조명회 등) 조명전 등 추진
- 공연 : 합창단, 대중가요, 오케스트라, 연극, 오페라 상호 공연 추진
- 영화제 : 부산국제영화제의 북한영화 초청 발표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남과 북의 동질성 교육
 -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콜라보 공연 기획
 - 남북한 예술노동자들의 참여 기획 확대
 -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각 문화단위에서 남북 연대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의 가능성 타진

[표 6] <남북문화교류 단계별 추진 과제>⁴³⁾

	제한적 복원단계	활성화 단계	제도적 안정화 단계
	<언어 및 문학분야>		
문화 예술 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학분야 인적 유대관계 및 기존 추진사업 복원 <input type="checkbox"/> 언어분야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정상화	<input type="checkbox"/> 문학분야 기존 활동의 강화와 새로운 사업의 발굴 <input type="checkbox"/> 언어분야: 국어학자 남북 학술교류 재개	<input type="checkbox"/> 문학분야 상대 문학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전략적 방안의 모색 <input type="checkbox"/> 언어분야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후속사업 협의

43) 박영정·윤지연의 앞의 보고서 p73~106의 서술 내용을 도표화 한 것임.

문화 유산 · 문화 산업 분야	<시각예술분야>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분야 남북 간 인적 유대관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 트성 시각예술 행사 개최	<input type="checkbox"/> 순회 전시회를 통한 민 족적 자긍심 고취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적 성과로 내세우는 아티스트의 방남전시 초청 <input type="checkbox"/> 민족적 성격을 중시하는 북한 건축계와의 학술토론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시각 및 생활문화 분야 각종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공연예술분야>		
	<input type="checkbox"/>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각 계기별 음악회 개최 <input type="checkbox"/> 교향악단 초청 연주 및 인기 공연물의 초청 공연 <input type="checkbox"/> 남북 및 해외교포 공연예 술인 간 인적 유대관계구축	<input type="checkbox"/> 남북 공연예술인 간 지 속적인 접촉 기회 확대 <input type="checkbox"/> 민간부문 주도로 본격적인 공연단, 공연작품 교환 공연 <input type="checkbox"/> 북한이 예술적 성과로 자랑 하는 공연예술 아이템 초청 <input type="checkbox"/> 남북 공동으로 주목받는 예 술가의 작품 합동으로 공연	<input type="checkbox"/> 남북 간 공연예술분야 교류협력의 심화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분야 교류협력 상설화
	<무형문화유산분야>		
	<input type="checkbox"/>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기반 생활양식 부문의 교류 우선 추진 <input type="checkbox"/> 북한 무형문화유산 현황 파악 및 인적 유대관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무형문화유산 발굴 보 호 및 교환 공연 <input type="checkbox"/> 남북 공동 향토민속 축제 개 최와 책자 발간으로 동질감 확산	<input type="checkbox"/> 민족문화의 동질화 내 지 포용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위한 공동 노력 <input type="checkbox"/> 통일의 주역이 될 어린이 대상 남북 공동행사 추진
	<유형문화유산분야>		
	<input type="checkbox"/> 중단된 장기 지속사업 복 원 및 기존 합의사업 재개 <input type="checkbox"/>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인류무 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input type="checkbox"/> 개성만월대 후속 사업 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 <input type="checkbox"/> 해외 역탈 및 불법 반출 문화유 산 환수 위한 남북 공조체제 구축 <input type="checkbox"/> 북한 민족유산 통합 DB화 작업	<input type="checkbox"/> 북한 내 유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 <input type="checkbox"/> 북한의 문화유산의 세계 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문화산업분야>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통신사 서울/평양 사무소 설치 <input type="checkbox"/>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문화적 접근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애니메이션분야 교류협력 복원을 위한 접촉	<input type="checkbox"/> 남북 영화인 교류 및 영화 공동 제작 추진 <input type="checkbox"/> 남북 방송인 교류 및 프 로그램 공동제작 추진 <input type="checkbox"/> 콘텐츠분야 인적 교류 및 공동 제작 추진	<input type="checkbox"/> 북한의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input type="checkbox"/> 남북공동제작 프로젝트의 해외시장 진출

[표 7] <남북문화교류 기반 정비 과제>⁴⁴⁾

	제한적 복원단계	활성화 단계	제도적 안정화 단계
법제 및 조직 정비	<input type="checkbox"/> 현행 법령과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로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 <input type="checkbox"/>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따른 각종 위험부담 제거	<input type="checkbox"/> 남북문화교류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제도적 안정화
인력 및 시설 정비	<input type="checkbox"/> 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문가 양성	<input type="checkbox"/>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단계 <input type="checkbox"/> 남북 문화시설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	<input type="checkbox"/> 북한 내 지방 문화시설 개보수 지원 <input type="checkbox"/> ‘남북거래문화원’(가칭) 서울·평양 설치 운영

(4) 문화분야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신경제지도에 준하는 남북 협력의 마스터 플랜으로서 가칭 ‘한반도신문화지도’ 마련

○ 가칭 ‘남북문화협정’ 체결 및 후속과제 설정, 이행 관리기구 구성 등 남북 문화교류와 협력을 전담하는 제도적 정비

○ 남북한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사업, 협력사업 개발 추진

44) 박영정·윤지연의 앞의 책 p107~115의 서술 내용을 도표화 한 것임.

6.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와 전제적 환경

1) 당면과제

(1) 평화협력을 위한 문화적 지원

-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문화행사 계속 추진
 - 2018년 공연예술교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남북한 대표적인 예술 단체 교류 공연 추진
 - 문화유산을 포함한 현대미술 작품 전시회 추진
 - 남북 영화의 국제영화제 공동 진출 추진
 - 2018년 전주영화제에 이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북한 영화 초청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기념하는 민족씨름대회 개최
 -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축제형 행사로 추진
-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문화, 체육 교류와 협력의 추진

(2) 평화번영시대에 대비한 남북문화 교류협력 환경 정비

-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 인적 교류 중심의 사업 추진
 - 문화분야 학술행사, 관련 기관/단체의 교류 사업 추진
- 가칭 ‘남북문화합의서’ 등 남북문화교류협력이 전면화할 것에 대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문화교류 전반의 원칙과 방향, 상호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남북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공동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 10년 정도 추진할 ‘남북문화교류 100대 과제’ 선정 추진
 - 저작권합의서, 문화유산합의서 등 하위 합의서 체결 추진
- 남북 문화분야 교류협력 확대 발전을 위한 대내 환경 정비
 - 남북교류 관련 법제 정비, 남북문화교류 지원 기구 설립 등
 - ‘신경제지도’에 준하는 ‘신문화지도’ 마련

(3) 평화문화 상징사업 추진

○ DMZ 평화문화벨트 조성

- 백령도에서 고성에 이르는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문화 주제의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판문점 지역의 조기 개방으로 생태환경 평화문화의 대표공간으로 활성화
- 경원선 연결을 고려한 철원지역 태봉국 철원성 발굴 조사사업 추진(DMZ의 문화적 가치 확인하는 사업)
- 세계평화대제전 개최

○ 개성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하는 사업 추진
- 단편적 사업 중심보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

○ 아시아-유럽을 육로로 연결하는 유라시안 문화라인 행사 추진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8.15 계기 국제 행사로 추진

2) 전제적 환경

○ 북한과 제대로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 또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함. 이질적인 경제시스템을 통일하고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조항에서 보듯, 남측과 북측이라는 특수한 공간이라 남북한의 관계는 기존의 법제도로 규정할 수 없는 애매한 영역임.

○ 또 정치적 변수가 워낙 커서 조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님. 실패확률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1) 가이드라인 제정

○ 과거 지나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여건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함. 이벤트 회사 대표가 행사를 진행한 뒤 북한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서 억류된 경우도 있었고, 한편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방송시간 경쟁을 유도하기도 함.

○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 속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남한사업자와 북한당국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가이드라인의 존재는 북한과 협상단계에서 남측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함.

(2) 합법적 접촉선 확보

○ 북한측에서 먼저 교류를 하자고 제안한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북한측 파트너가 자신의 소속과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 경우도 거의 없음. 모든 남북교류를 대남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했고, 실제로 담당자들도 사업자가 아닌 노동당 대남부서 성원들이었기 때문임.

- 북한과 교류는 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지배했고 사업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음. 이런 환경에서 브로커들이 활개침.

- 남북문화관광 교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명확한 접촉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북한과 교류는 공식경로보다는 ‘실력자’를 통한 비선확보가 업무수행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하지만 북한도 엄연히 ‘정상국가’이고 대남사업은 매우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 남한과 교류는 노동당 외곽조직인 조선아태 혹은 민화협을 통해서 진행함. 그러나, 지금은 새로 생긴 민경협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창구임.

- 2018년 이후 대남사업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최근 들어 북한의 대외사업형태에 큰 변화가 감지됨.

- 2016년 ‘노동당 제7차당대회’ 이후 북한사회 전반에 각자도생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각 기업소, 대학, 버스회사, 식당, 상점 등 개별 조직이 직접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무역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 따라서 남북문화관광교류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통전부가 계속 보유하겠지만, 실제 사업권은 경제실무부서나 개인사업자들에게 과감하게 넘길 가능성도 예상됨.

(3) 송금절차 투명성 확보

○ 과거 북한으로 합법적인 송금절차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송금과정에 어려움

큼. 심지어 통일부가 조선아태나 민화협을 북한당국의 공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두 기관과 사업을 진행할 때는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외화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창구를 마련해서 송금절차를 원활히 하는 것이 급선무임.

- 송금과정의 투명성과 위험성을 줄이고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막을 수 있음.

(4) 계약불이행시 구제방법 확립

○ 교류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북한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임. 이럴 때 이행강제 수단 혹은 손해배상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반도의 정치상황 때문에 부득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는데,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수보험을 통해 구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5) 민관거버넌스 구성

○ 남북간의 교류는 아무리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할 수 있음. 이러한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함. 민관거버넌스는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간 경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함.

○ 아울러 북측과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북한의 대남경제교류 통로는 북한 당국임. <북한당국 대 남한기업>의 형태가 되어서 아무래도 남한의 기업들이 '을'의 위치에 놓일 수 있음.
- '민간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에 대한 발언권과 교섭력 및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둘러 '남북문화교류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남북문화교류진흥원'⁴⁵⁾이라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인도적 지원을 하는 NGO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인프라 구축은 남북 사이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대비한 인적 자원 개발과 교류협력 역량 강화, 민관의 협력을 조절하고 지원할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같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차원

45) 박영정·윤지연, 앞의 보고서 p110.

의 준비가 필요함.⁴⁶⁾

○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라고 폄하했던 한 정치인이 남한공연단의 평양 공연 제목인 ‘봄(spring)이 온다’를 ‘봄(bomb)이 온다’로 비틀어 정치공세를 펴는 등 반대세력의 폄훼와 모욕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 이에 대한 과감한 제재와 경고 및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현상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46) 김면,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 이장로·김병로 엮음,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방안』 (한울아카데미 2012), 147쪽. “독일이 40여 년에 걸친 분단 구조를 극복하고 1990년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독일학술교류처(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dienst)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공동 학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논의의 장을 민간 차원에까지 확대하고 문화공동체형성을 통한 협력의 장을 만들기도 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내적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독일의 학술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노력은 분단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 2019년 현재, 남북한의 분위기는 다소 부침이 있긴 하지만, 지난 분단 이래 가장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가장 교류가 활발한 시점임. 바야흐로 화해와 공생 무드에서 ‘통일’이라는 글자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좀 더 특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단되어 살아 왔고, 그간 교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마저도 미미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임.⁴⁷⁾

○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우리의 한 민족이 아니라 적으로 여겨져 왔고, 누군가가 통일에 대해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갔으며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초점을 맞추어 적대감을 키우기에 급급했음.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통일이 하나의 망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발표로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였음.

○ 이어진 후속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과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서 보듯이,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제는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문화교류 역시 북한 비핵화 의제 해결 정도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 점임.

○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 과정을 보면 남북 당국은 군비협상과 교류협력 양 측면에서 획기적 진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한 사이의 제반 사업도 일종의 속도 조절'을 받고 있는 양상이며, 남북문화교류 역시 제대로 된 시작을 보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바야흐로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중간의 관계 복원으로 인해 한반도

47) 박영정·윤지연 앞의 보고서 p119~120 참조.

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면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세계화와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전기가 마련되고 있음.

○ 이에 남북은 물론이고 북중간 교류협력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성에 미우 절실하기 때문임. 하지만, 북중협력 증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음.

○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부국강병을 통한 하드 파워(hard power) 시대에서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시대로 접어들었음. 때로는 힘에 의한 강요보다는 호감 가는 이미지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

- 과거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군사력을 내세워 경쟁했지만, 어느 편도 굴복시키지 못했음. 오히려 평화는 멀어지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었음.

○ 통일이란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함.

- 문화교류야 말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진정한 평화의 봄을 맞기 위해 더 활발한 문화교류가 필요한 시점임.

[참고문헌]

- 김면, <독일의 교육 통합 경험과 그 시사점>, 이장로·김병로 엮음,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방안』, 한울아카데미, 2012, 서울.
- 김태만, <남북중 협력 현황과 과제 :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 이현대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근간, 서울.
- 박영정·윤지연,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 추진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11, 서울.
- 박영정 외, 『문화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서울.
- 송태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국제평판의 쇄신>,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3, 통권 47호, 서울.
- 오양열, <남북 문화교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주최 2018 제5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발제문, 2018.11.28., 서울.
- 윤인주·홍장원·이정아 저,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개발원, 2018.11, 부산.
- 이우영, <남북 간 대중문화 교류의 현 상황과 미래>, 플랫폼, 2011.3, 서울.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sq=784&page=1&Q=&S=&sort=>
- 전영선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18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18, 서울.
- 전영선, <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모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늘품플러스, 2015, 서울.
- 조상우,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2018, vol.19, no.3, 서울
- 조성렬,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과 한국의 역할>, 『평화 새로운 미래-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 10.5, 서울.
- 차명철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 주체107(2018)년 11월, 평양
- 통일부, <남북 예술단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2018.10.2, 서울.
- 『노컷뉴스』, 2018.11.26, http://m.nocutnews.co.kr/news/5066486#_enliple
<http://hangzhou.c2btrip.com/xianlu/479764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1374&ref=A>,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922260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9042>
<http://news1.kr/articles/?3485285>
<http://www.3149111.com/>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1130100077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1116.22005006609>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67>
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8-09-13-004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7500046&wlog_tag3=naver,
<http://you.ctrip.com/journeys/NorthKorea100103/504812.html>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369641007>.

<https://news.join.com/article/229628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1142&cid=46629&categoryId=46629>.

『남북관광협력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cncn.com/xianlu/816684595558>

<https://www.nocutnews.co.kr/news/408558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20180711_5-07112018084743.html,

[부록]

[1]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2017년 5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숭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 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

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2] 문재인 대통령 무술년 신년사 (2018년 1월 1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평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평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통령 문재인.

[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2018년 1월 1일)

지금부터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자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며 최고사령관 당과 국가 군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2018년 새해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노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런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감회 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새해 소원과 우리 인민 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동지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인한 인민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 얻으며 조국번영의 진군길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 뜨거워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특이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협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 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옹위하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 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

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 탄도로켓 추진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 중임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그 이행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들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들었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노선과 과학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 조국 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 장거입니다.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 있게 떠밀어준 영웅적 조선 우리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업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란 것을 세계 앞에 증명하기 위해 온 한해 헌신분투한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우리식의 산소열법 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 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직 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게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여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새형의 트랙도르와 화물자동차 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확 농장과 작업반 대열을 내리고 예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려명 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 전투 1단계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만리마속도 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 속에서 새로운 전형 단위들이 연이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자량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과학문화 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일신되었으며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혁명적 낭만과 전투적 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공연 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노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노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 책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는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사변적인 나날들에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해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70돌을 창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 행로의 빛나는 영웅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 공세를 벌여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 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혁명적 구호입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 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여 최후발악하는 적대 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수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중심 과업은 당 중앙위원회 제 7기 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 자립적 동력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 수력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 공업 부문이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국가적인 교체 생산 조직을 짜고 들며 전력낭비 현상과의 투쟁을 힘 있게 벌여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 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금속 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의 필요한 전력 철정광 무연탄 갈탄 화차와 기관차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 다음에 철강재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 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탄성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 생산기지과 린비료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 완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 공장과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계 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은을 낼 수 있게 석탄과 광물 생산 철도 수송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 운수 부문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 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며 철도의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열차의 무사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 공장들이 설비와 생산공정을 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 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

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며 도심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하여 지방 경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배무이와 배수리 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 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산림 복구 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를 잘 하는 법과 함께 도로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 정리를 정상화 하며 환경보호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 동원하고 증산 전략 투쟁을 힘 있게 벌여 더 많은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연구 부분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적인 생산 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재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들은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시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원 진영을 강화하고 현대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 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우리의 설비와 기구,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우리식의 체육 기술과 경기 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 시대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 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짓눌려 버려야 하겠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 모든 사람이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70돌이 되는 올해의 인민군대는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시켜 강도높이 조직 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에 일당백의 전투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적발분쇄하며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 훈련을 힘 있게 벌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 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켓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 사상적 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우리 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 위해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업 건설 사업 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 빼고 혁명적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히 벌여 당과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반석같이 다져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무엇보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과 생사 운명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전문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해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들의 마음 속 고충과 생활상 애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 사이, 이웃들 상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

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 대진군에서 영웅적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원동력으로 만리마 속도 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에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 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막으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박 소동과 광란적인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정세는 유례없이 악화되고 조국 통일의 앞길에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 항쟁에 의하여 파쇼통치와 동족대결에 메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 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려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루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온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해 정세 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며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 나아가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며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 계각층 단체 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복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남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북남관계는 언제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할 구실을 주고 문제 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외의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의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들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 썬우려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한다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결단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 해로 될 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우리의 진군은 필승불패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여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체 인민의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올 것입니다.

모두 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5] 9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와 실천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6]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약속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썬트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7] 7.4 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후 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8]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

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9] 6.15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홀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1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